

꿈을 꾸는 참사랑 (세대통합 프로그램)

I. 서론

1.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용어의 정의
3.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목적

II. 본론

1. 세대통합 프로그램 추진과정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진행과정
3. '꿈꾸랑' 활동프로그램

III. 결론

1. 교사의 프로그램 실행평가
2. 향후 타 어린이집에 참고가 되는 제언
3. 기대효과 및 제언

IV. 향후 타 어린이집에서 참고가 되는 제언

IV. 참고문헌

어린이집명: 시립관산어린이집
프로그램 대상: 만3세~4세
프로그램 기획: 주진이 원장
프로그램 담당: 김영혜 주임교사
차효정 교사, 김주현 교사
유서정 교사



I. 서론

1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중 하나는 가족체제의 변화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 간 상호작용 및 신체적 접촉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일이었다. 유안진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살림에서 한걸음 물러난 조모가 가사에 바쁜 엄마를 대신하여 손자녀들을 맡아 손자녀의 양육에 깊이 관여하고 손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과 교육자 및 놀이자,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였다. 그만큼 조모는 손자녀 양육에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조모 자신도 살림을 다음 세대에게 이양한 후 여가와 소외감, 무력감 등을 손자녀들과 더불어 해소하였으며 자신의 생명이 손자녀로 인해 소생함을 느끼며 기쁨을 얻었다. 즉, 조모와 손자녀는 서로에게 매우 좋은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매우 좋은 친구 사이였다.

그러나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화한 현대사회에서는 조부모세대와 손자녀세대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핵가족은 편리성과 효율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가족제도가 가지고 있는 세대 간 통합이나 전통의 자연스런 전수 등 좋은 점들을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가족의 삶의 형태나 가치의 변화로 세대 간의 갈등 및 단절,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전통문화 및 가치를 학습할 사회화 경험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야기되는 세대 간의 단절은 노인에게 외로움과 상실감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하고 있다. 소외와 상실 등을 경험한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는 우울 증세이며 노인 인구의 무려 2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정도의 심각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족과 분리되어 입소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에게는 사회적인 고립감이 더 하다. 이는 가정에 있는 일반노인과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의 우울성향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며 사회를 통해 관심과 인정, 사랑을 원하고 있다. 노년의 삶을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삶을 활력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조건일 것이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역할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하면서 유아들은 과거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에서 교사와 유아로 이루어진 유아교육기관으로 유아에 대한 교육의 책무가 많이 이양되었으며 유아교육기관은 대안적인 가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은 구성 체제 면에서는 핵가족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즉, 핵가족에 익숙한 성인 교사와 유아로 구성된 교육현장에서는 과거 확대가족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가족 관계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조부모 세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실질적으로 조부모 세대는 풍부한 삶의 연륜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의 전수가 빈약한 유아교육 현실에서 문화를 전수시키고 자녀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푸근하게 부모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조부모 세대에게는 유아들과 함께 하며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용어의 정의

세대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이란 서로 다른 두 세대 간의 협력, 상호작용 및 교환을 증가시키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각 세대들은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경험이 다르다 해도 전체 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 시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첫째, 고령화와 세대갈등, 둘째, 핵가족화와 세대 단절, 셋째, 전통전수와 정신문화의 위기로 인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부모 세대(1세대)와 손자녀 세대(3세대) 간의 교류는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세대 간 정서적인 지지를 돕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세대와 3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및 노인시설의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 등 담당자(2세대) 역시 1세대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발달적 측면에서 성숙과 인생의 의미를 통합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에 노인 입소시설과 유아교육기관 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대 사회의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사려된다.

이에 노인 입소시설의 노인이라 함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저하가 심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기요양 1등급은 프로그램 특성상 배제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 2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3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목적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과 유아교육기관 간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께는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유대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들에게는 경로사상을 계승시키고 어른 공경과 예의,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를 심어주며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갖는다.

4 세대통합 프로그램 추진과정

자매결연 협약식 : 2011년 3월29일 참사랑 요양센터와 시립관산어린이집이 요양센터 어르신들의 활력을 증진하고 원생들의 경로효친에 대한 자연스러운 통합의 장을 마련하면서 어르신들께 기쁨과 웃음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협약을 함

- 장 소 : 고양덕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 간 : 오전 10시30분

제1차 회의: 관산어린이집과 참사랑요양센터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으로 2011
년도 연간계획 작성

5월: 어버이날 특별 재롱잔치

6월: 텃밭에서 상추 뜯어 쌈을 싸 먹어요.

9월: 추석-웃놀이 대회

11월: 무뽀기

12월: 작은 발표회

제2차 회의: 관산어린이집과 참사랑요양센터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으로 2012
년도 연간계획 작성

3월: 원예 프로그램

6월: 부채 꾸미기

9월: 송편 만들기

12월: 재롱잔치

(*3개월마다 말일 날 진행됩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세대통합 프로그램 진행 과정

2011년 05월 :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린이 공연

2011년 06월 : 미니 주먹밥 준비하여 뜯은 상추에 쌈 싸먹기

2011년 09월 :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웃놀이 대회

2011년 11월 : 어르신과 함께 무를 뽑아요

2011년 12월 : 노래 및 율동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며 어르신께 즐거움을 드린다.

2012년 03월 : 원예활동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어르신께 선물해 드리기

2012년 06월 : 한지를 찢어보고 풀을 발라 어르신과 부채를 꾸민 후 선물로 드리기

2012년 09월 : 어르신과 함께 송편을 빚어보고 재료를 알아보기

2012년 12월 :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율동과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

Ⅱ. 본론

1 '꿈꾸랑' 활동프로그램

[2011년~2012년 꿈꾸랑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동구성 계획안]

회 기	일정	행 사 명		장 소	활 동 구 성
1	5월	관람	어버이날 특별 재롱 잔치	대강당 (-2F)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린이 공연
2	6월	원예	텃밭에서 상추 뜯 고 쌈을 싸 먹어요	요양 센터 옥상정원	미니 주먹밥 준비하여 뜯은 상추에 쌈 싸먹기
3	9월	놀이	추석- 윷놀이 대회	요양 센터 별관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윷놀 이 대회
4	11월	원예	무 뽑기	요양 센터 옥상정원	어르신과 함께 무를 뽑아요
5	12월	관람	작은 발표회	요양 센터 5층	노래및 율동으로 한해를 마무리하 며 어르신께 즐거움을 드린다.
6	2012년 3월	원예	꽃바구니 만들기	요양 센터 5층	원예활동으로 꽃바구니를 만들고 어르신께 드리기
7	6월	미술	부채 꾸미기	요양 센터 5층	한지를 찢어보고 풀을 발라 어르신 과 부채를 꾸민후 선물로 드리기
8	9월	요리	송편빚기	대강당 (-2F)	어르신과 함께 송편을 빚어보고 재 료를 알아보기
9	12월	관람	작은발표회	대강당 (-2F)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율 동과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 간을 갖기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 [꿈.꾸.랑] 1회 ○ 어버이날 맞이 행사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갖기> 지역사회에 관심가지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활 동 유 형	신체표현	대 상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1년 5월 6일 금요일 (10:30 ~11:30)	대상자	입소어르신 39명/ 관산어린이집 원아 31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대강당		
업 무 분 담	• 담당 및 진행 - 박선영 교사 사진촬영-이수연교사 • 프로그램 보조 - 어린이집 교사 2명, 센터직원 5명		
준비물	• 카네이션, 카메라, CD플레이어, 현수막		
진 행 사 항	① 10:30 - 어르신 및 어린이 집결 (요양센터 강당) ② 10:35 - 어르신 앞에서 어린이들 인사하기 ③ 10:45 - 어린이 재롱잔치 ④ 11:00 - 어르신들 옆에 아이들을 배치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⑤ 11:15 - 기념 사진 촬영 ⑥ 11:20 - 아이들과 포옹하며 헤어지기 ⑦ 11:30 - 진행자의 마무리 멘트와 함께 박수치며 마무리		
활 동 내 용	 1) 관산 어린이집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요양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르신들께 예의바르게 인사하려고 서있는 모습이에요~		

활동 내용	2) 어르신들 앞에서 관산 어린이집 친구들이 율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래와 함께 흥얼거리며 어르신들도 흥겨워 하셨습니다. 6) 관산 어린이집 친구들이 어르신들께서 예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어르신은 어린이가 꽃을 달아드리자 처음에는 당황해 하시며 “이 꽃 나한테 달아주는 거야?”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아이는 “네!”라고 크게 답하며 어르신께 정성스럽게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분들을 생각하며 카네이션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친구들과 어르신들 모두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평가	처음으로 어버이날 맞이 행사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셨고 어린이집 친구들도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손자, 손녀를 생각하며 아이들 재롱에 기뻐하셨고 잠시였지만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친구들과 어르신들은 서로 포옹을 하며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 [꿈.꾸.랑] 2회 ○ 상추를 직접 뜯어 먹어요!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다른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활 동 유 형	과학	대 상 연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1년 6월17일 금요일 (10:30~11:30)	대상자	입소어르신25명/ 관산어린이집 원아32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7층 옥상		
업 무 분 담	• 담당 및 진행 - 박선영 교사 •주먹밥 준비 - 영양사 • 어르신 및 어린이 보조 - 사회복무요원 4명, 어린이집교사2명		
준비물	노래방기기, 상추 담을 소쿠리 6개, 상추 씻을 큰 대야 1개, 한입주먹밥 100개, 카메라		
진 행 사 항	① 10:30 - 7층으로 어르신 및 어린이 집결 (엘리베이터 과적 혼선 위하여 어르신은 미리 옥상으로 이동) - 행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래방 기기로 동요, 만화주제를 메들리로 들어놓는다. ② 10:35 - 어르신 앞에서 어린이들 인사하기 - 한 달 동안 보고 싶었는지, 잘 계셨는지 등의 안부 인사나누기 ③ 10:40 - 어린이들 공연 '아기염소'(춤과 노래) ④ 10:45 - 장기요양보험공단 고양지사에서 준비한 후원품 전달식 - 담당 과장, 차장 진행/ 후원물품 내용(과자류 2박스) ⑤ 10:50 - '상추'에 관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누기 ⑥ 10:55 - 어르신과 어린이는 짹을 이루어 상추텃밭으로 이동 - 어르신들은 총 지정 텃밭으로 이동하고, 어린이는 2~3명씩 짹을 지어 어르신과 담당텃밭을 지정해준다. ⑦ 11:00 - 어르신인 지도하에 어린이는 상추를 뜯는다. ⑧ 11:15 - 다 뜯은 상추는 소쿠리에 담고 수돗가에서 깨끗이 씻는다.		

- ⑨ 11:20 - 미리 준비한 한입주먹밥에 직접 뜯은 상추를 싸서 어린이들은 어르신 한분 한분 입속에 씹상추를 넣어 드린다.
- 어르신들도 상추를 싸서 어린이에게 먹여준다.
- ⑩ 11:30 - 다 함께 소감을 말하고 합창으로 마무리한다.



- 1) 모처럼 날 좋은날 옥상에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것이지만 벌써 꽤 친해지어 서로 자연스레 인사를 나눕니다.
- 2) 어린이들이 신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분위기를 업~ 하였습니다. 노래와 율동을 마친 후 노래방기기로 만화주제가와 동요를 메들리로 틀어놨습니다. 어린이들도 신나고 어르신들도 무척 기운이 나고 신나합니다.
- 3) ‘상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밥에 싸먹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먹어봤어요”등등 자유롭게 [상추]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 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린이와 함께 있으면 너무 의젓해지시고 재잘재잘 떠드는 어린이를 보고 있는 것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가롭니다.
- 4) 어르신과 어린이들은 짝을 이루어 텃밭으로 나가 상추를 뜯습니다.
처음 상추를 뜯는 어린이를 보고 어르신들은 자신감 넘치는 듯 자세히 상추 뜯는 방법을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상추를 뿌리채 뽑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께서 가르쳐준 대로 제법 잘 따서 소쿠리에 한가득 담은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 5) 다 뜯은 상추를 어린이들이 수돗가에 가서 열심히 씻었습니다.
 6) 깨끗이 씻은 상추를 미리 준비한 주먹밥에 싸서 어르신은 어린이 입으로, 어린이들은 어르신 입으로 하나씩 먹여드렸습니다. 너무 맛있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7) 마지막으로 서로의 느낌을 발표하고 합창을 하고서 금일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다. 여럿이서 함께 상추를 뜯고 함께 나눠먹으니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 직접 뜯은 상추라서 더욱 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는 어르신, 언어장애로 말씀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도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직접 상추를 뜯고 씻어보니깐 재미있어요~” “집에서도 엄마를 도울 거예요”, “나~ 상추 많이 뜯었어요! 선생님! 나 잘 했지요?”, “할머니가 잘 가르쳐주셔서 나 상추 잘 뜯었어요, 할머니가 좋아요~” 하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씩~ 웃는 어린이들을 보니 어르신들도 우리 교사와 직원 모두도 감동을 하였습니다.

평 가

실내에 제한되지 않고 [상추]라는 생명력 있는 매개체를 통한 외부에서의 어르신과 어린이의 상호작용(신체적 접촉, 의사소통 등)은 더욱더 세대 간 이해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요양생활에 무료한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 [꿈.꾸.랑] 3회 ○ 추석을 맞이하여 ‘옷놀이’를 해요~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갖기> 지역사회에 관심가지고 이해하기 신체운동>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활 동 유 형	게임	대 상 연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1년 9월8일 목요일 (10:30~11:30)	대상자	입소어르신25명/ 관산어린이집 원아30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별관 (5층)		
업 무 분 담	• 담당 및 진행 - 박선영교사 • 사진촬영 - 김주현 교사 • 프로그램 보조자 - 사회복지사 실습생 1명 ,어린이집교사2명		
준비물	• 노래방 기기, 플랜카드, 카메라, CD Plaer,선수단 머리띠(어르신용) • 옷놀이(대형/ 일반), 옷말(3개씩), 옷판(1개씩), • 우승팀 선물(과자류)		
진 행 사 항	① 10:30 - 별관으로 어르신 및 어린이 집결 (어르신 선수단은 부직포를 이용하여 머리띠를 착용) - 행사 분위기 활성화 위해 노래방 기기(동요 메들리) - 자리배치(게임을 위한 2팀으로 자리배치) ② 10:35 - 어르신 앞에서 어린이들 인사하기 - ‘추석’, ‘옷놀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③ 10:40 - 어린이 재롱공연(2곡): 어린이 이동 보조 / CD 작동 ④ 10:45 - 프로그램 진행방법 소개 및 진행 - 옷놀이 진행방법: 2팀으로 나뉘어 진행 - 선수: 어르신 선수 vs 어린이 선수 - 대형 옷(한명이 한가락 던지기)으로 1판 실시/ 일반 옷으로 1판 실시 - 말을 놓는 사람은 요양 센터 직원이 담당 ⑤ 11:10 - 옷가락 이름 맞추기 게임 (개인전 - 손들고 맞춘 사람에게는 사탕전달) ⑥ 11:20 - 옷놀이 마무리: 우승팀에게 선물증정 ⑦ 11:25 - 다 함께 소감을 말하고 합창으로 마무리한다.		



- 1) 대한민국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유아들과 참사랑의 고운 어르신들은 옷놀이 대항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만나게 되니 이제는 너무나 그리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어린이집 친구들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자 멋진 한복을 모두 입고 참사랑요양 센터로 한걸음으로 달려왔지요.
- 2) 게임에 앞서 유아 공연 시간입니다 “열일곱 살이에요”음악반주에 맞추어 남녀 유아들은 짝을 맞추어 앙증맞은 공연을 합니다. 관람하시는 어르신들은 구름을 타는 듯한 즐거움과 신나함에 연신 박수를 치고 추임새를 넣고, 노래를 따라 부르십니다.
- 3) 추석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주고 받은 뒤 본격적인 게임시간~어르신 대 유아로 팀을 구분하였으며 게임의 혼잡을 막기 위해 2팀으로 구분~ 노란색팀과 초록색팀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 4) 유아들이 던진 옷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말이 움직이는 대로 어르신의 눈이 따라 갑니다. 아주 진지한 어르신의 모습이지요?



활동내용

- 5) 어린이 키만큼 커다란 옷을 한 개씩 들고 던집니다~ “도”~ 어르신들이 일제히 “도”를 외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옷이름을 잘 알지 못하더군요. 어린이만큼이나 신이난 어르신들은 커다란 옷가락을 던지며 외칩니다. “내가 말들을 업고 갈터이니 기대하셔라~”어디서 옛날 기억들이 생각나시는지 아주 초롱초롱하신 눈빛의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니 동심으로 온듯 합니다.



- 6) 유아가 잘하나? 우리 어르신들이 잘 하시나? 앞치락 뒤치락하며 팽팽한 격전을 펼치는 가운데 어르신 대 어린이는 1:1로 무승부로 게임을 장식하였습니다. 모두들 신명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7)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네요 한 어르신은 유아를 부둥켜안고 뽀뽀를 하며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는 거지?~” 하며 헤어짐을 아쉬워 합니다.정기 많은 어르신들은 유아한명 손주처럼 각별히 아끼시는 모습 행복이 밀려옵니다.



평가

한가위를 맞아 어르신들과 전통놀이의 하나인 ‘옷놀이’를 하면서 좀더 풍요로운 추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았다.전통놀이인 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호응도 높았으며 진지하고도 재미나게 옷을 던지고 즐겼던 시간이었다. 요양시설에서 조금은 외롭고도 쓸쓸한 추석을 맞아야할 어르신들이 유아들로 인해 좀 더 즐겁고 뜻 깊은 추석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 [꿈.꾸.랑]4회차 ○ 텃밭에서 무 뽑기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다른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활 동 유 형	과학	대 상 연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1년 11월15일 화요일 (10:40~11:40)	대상자	입소어르신30명/ 관산어린이집 원아 28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7층 옥상		
업 무 분 담	- 총 진행 - 주진이 원장 - 사진촬영 - 김주현교사 - 프로그램 보조 - 어린이집 선생님 2명과 센터 직원 6명		
준비물	비닐장갑		
진 행 사 항	① 10:40 - 어르신 및 어린이 집결 (참사랑노인요양센터 7층 옥상) ② 10:45 - 어르신 앞에서 어린이들 인사하기 ② 10:50 - 프로그램 소개(무 뽑는 시범보이기) ③ 11:00 -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프로그램 진행 1) 진행자는 무 뽑는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2)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무를 뽑을 있도록 유도한다. ④ 11:25 - 소감 발표하기 ⑤ 11:30 - 기념사진 촬영 후 마무리		

- 1) 관산어린이집 친구들이 무를 뽑기 전에 비닐 장갑을 끼고 있어요~
원장선생님 설명에 귀 기울이며 무를 뽑기 전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선생님! 무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얼른 뽑아요~”



- 2) ○○○어르신께서는 무성하게 자란 무를 보시며 “아이고 텃밭에서 잘도 컸구만~” 하시면서 열심히 무를 뽑으셨습니다.

- 3) 관산 어린이집 두 꼬마 친구들은 무가 잘 안 뽑히자 서로 도와가며 무를 뽑고 있네요.
“무가 잘 안뽑혀~ 도와줘~~~”
“나랑 같이 뽑자~ 우리 둘이하면 뽑을 수 있어!”
서로 무를 뽑으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친구간의 우정도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 4) 어린이집 친구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무를 뽑기 시작하더니 이제 뽑는게 신났는지 열심히 무를 찾아가며 뽑고 있네요~
“선생님~! 저 여기 텃밭에도 들어가서 무 뽑을래요~”
아이들 모두 적극적으로 무를 뽑고 자랑하기 바빴답니다^^
“내가 뽑은 무가 더 크다~” 이러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있네요~



- 5) ○○○어르신은 옆에 어린이가 무 뽑는 것을 어려워하자 친절하게 뽑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시네요~
“자, 할머니 하는 거 봐봐 밑쪽을 잡고 힘껏 잡아당기면 돼.
할머니랑 같이 해볼래??”
“네~~저도 해 볼래요!!”라고 유아는 답하네요.

	6) 고사리같은 손으로 열심히 무를 뽑고 있는데요~ 한 친구는 자신이 뽑은 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저 벌써 무 20개는 넘게 뽑은 거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뽑았을 걸요! 또 뽑아야지~”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을 무를 뽑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7) 관산 어린이집 친구들과 요양센터 원장님께서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뽑은 무를 들고 사진 찍겠습니다~ 찰칵!!”
평 가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참석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이들과 열심히 무를 뽑으셨다. 오랜만에 무도 뽑고 아이들도 보아서 기쁘고 즐거웠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에게서 푸근함을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평소 경험할 수 없었던 체험을 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 [꿈.꾸.랑] 5회차 ○ 관산 어린이들이 참사랑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발표회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갖기> 지역사회에 관심가지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활 동 유 형	신체표현	대 상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10:30~11:30)	대상자	입소어르신35명/ 관산어린이집 원아 32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대강당 (지하2층)		
업 무 분 담	• 총 진행 - 박선영교사 • 사진촬영 - 어린이집교사 1명 • 프로그램 보조 - 어린이집 교사 4명과 요양 센터 직원 7명		
준비물	• 노래방 기기, CD 플레이어, 선물 39개(어린이35개, 교사4개)		
진 행 사 항	※ 참사랑 어르신들께서는 빨간 산타모자를 미리 쓰시고 입장함 ① 10:30 - 어르신 및 어린이 지하 강당2층으로 집결 - 어르신과 어린이 인사하기 - 프로그램 분위기 활성화 위해 노래 합창(참사랑 웃음송, 토마토) ② 10:40 - 프로그램 소개 (참사랑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어린이 재롱 잔치) ③ 10:45 - 재롱잔치 1) 관산 어린이집 4세반 어린이들 공연: 노래 및 율동 2곡 2) 관산 어린이집 5세반 어린이들 공연: 노래 및 율동 2곡 3) 관산 어린이집 6세반 어린이들 공연: 노래 및 율동 2곡 ※ 이수연 교사가 음향(공연)을 담당한다. ④ 11:20 - 마무리하면서 소감 나누기 ⑤ 11:25 - 선물 전달: 산타할아버지 안에 양말과 과자가 들어있음 (미술수업시간에 미리 어르신께서 작업하신 선물꾸러미를 어르신 1명이 어린이 1명씩에게 각각 나눠주며 포옹한다) ⑥ 11:30 - 참사랑 웃음송 노래 함께 부르며 마무리		



- 1) 오늘은 2011년 마지막 만남의 시간이다.
봄부터 벌써 5번이나 만나서 이제는 서로가 너무나 보고 싶고, 익숙해진 사이가 되었다. 관산어린이집 친구들이 오늘은 몇주전 부터 준비한 공연을 참사랑 어르신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요양 센터로 달려갔다.

아주 어린 4세반에서부터 의젓한 6세반 친구들이 노래와 율동을 준비하였다. 무대 의상까지 맞추어 입으니 정말 귀엽고 깜찍했는지 어르신들은 연신 박수를 아끼지 않으셨다

어린이 친구들은 공연 내내 실수도 많았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도 웃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어르신들에게서 아이들은 더욱 힘을 얻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공연에 맞추어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하고 크게 웃으시는 어르신 모습 한분 한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다.

- 2) 화려한 어린이들 깜찍한 공연이 끝이 났다. 공연하는 어린이 눈빛 하나하나 손끝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웃고, 박수를 치시는 참사랑 어르신들의 모습에 뿌듯함과 대견한 만족감이 물씬 묻어난다.



- 3) 어제 참사랑어르신들께서 “미술교실” 시간에 오늘 공연 올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손수 포장하였다. 양말하나, 과자하나를 담은 산타할아버지 포장이었다. 선물을 넣고 눈을 붙이고, 얼굴을 그리고.. 빨간 산타모자까지 만들어 씌우면서 어린이들을 줄 것에 마냥 설레이게 만든 정성 가득한 작품들이다.

- 4) 어르신 1명과 어린이 1명이 짝을 지어 마주본다. 그리고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미리 나눠드린 산타할아버지 선물을 어르신 손에서 어린이 손을 넘겨준다. 정성 가득한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이 마냥 신나하고 기뻐하였다. 그 모습을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그 이상으로 기뻐하신다.



- 5) 빨간 모자를 쓴 참사랑 산타 할머니들 모습과 짝꿍 어린이들의 모습이 동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 6) 짹짹~ 어르신과 어린이!
우리 서로 너무 많이 닮았죠?
눈도 닮고 표정도 너무
똑같아요^^

- 7) 저희도 봐주세요~
할머니랑 저랑 정말 똑같지요? 하
하하... 우리 친할머니가 질투하실
지 모르겠네^^



평 가

들뜬 연말이지만 시설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어르신들은 그 분위기를 느끼지도 못한 채 외로워 하실 것 같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추워질 그 분들에게 우리들의 작은 발표회로 가는 해의 아쉬움과 새해의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대 간에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 더 없이 흐뭇하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 [꿈.꾸.랑]6회차 ○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꽃꽂이 !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다른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미술적 요소탐색하기		
활 동 유 형	조형	대 상 연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2년 3월 30일 금요일 (10:30 ~ 11:30)	대상자	입소어르신 15명/ 관산어린이집 원아 30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대강당(B2층)		
업 무 분 담	• 총 진행 - 원예치료사 사진촬영-김주현교사 • 프로그램 보조 - 어린이집교사 4명		
준비물	• 오아시스, 꽃꽂이 꽃(장미 외 5종), 사탕, 리본끈, (물담을) 대야, 가위, 포장용 부직포 및 비닐(오아시스 포장할 재료)		
진 행 사 항	① 10:30 - 어르신 및 어린이 집결 - 요양센터 대강당 지하 2층으로 모이기 - 각 테이블에 어르신과 아이들이 짝을 지어 앉기 ② 10:35 - 어르신 앞에서 어린이들 인사하기 ③ 10:40 - 원예치료사 오늘의 작품 설명, 재료배분 ④ 10:50 - 원예치료사 설명에 맞춰 순서에 맞게 오아시스에 다양한 꽃을 꽂아보고 포장지로 마무리하여 꽃꽂이 완성하기 ⑤ 11:10 - 각자 만든 꽃꽂이를 가지고 꽃냄새 맡아보기, 서로 작품 칭찬해주기 ⑥ 11:20 - 진행자(원예치료사)의 마무리 멘트 ⑦ 11:25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선물 증정식 및 사진촬영 ⑧ 11:30 - 어르신과 작별 인사를 한 후 꽃꽂이를 마주 교환한 후 마무리		



1) 원예치료사 선생님께서 오늘 할 작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으시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어른들은 열심히 재료 배분을 하고 있네요~ 어른신이 “애들아 이거 하나씩 나눠 갖자~”하니 애들이 알아서 서로 나눠 갖고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설명을 듣네요.

2) 국민건강공단 고양덕양 지사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직 손 활동이 미숙한 어린이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도와 주시면서 “우리 여기다가 장미꽃 함께 여기 꽃아볼까?”라는 질문과 함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니다.



3) 요양센터 어른신께서는 아이와 함께 꽃을 나누며 꽃꽂이를 하고 있어요. “애야, 기다려 가위가 위험하니까 할아버지가 잘라주면 이걸 꽃아라” 이에 아이는 “네~^^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보기에도 훈훈해 지는 모습 이였습니다.



6) ○○○ 어른신은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잎 따는 것을 힘들어 하자 어른신이 만드는 것보다 아이 작품에 정성을 기울이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른신은 프로그램 중 내내 아이들과 함께 해서 좋다고 말씀하시며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어른신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7) ○○○어르신은 아이와 작품을 다 만든 후 기념 촬영을 찰칵!
참 의젓해 보이시고 아름다운 모습 이십니다.



지사장님 후원 물품 증정식이 있는 후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 가

아이들과 어르신들 모두 봄을 맞이하여 꽃도 보고 만지기도 하며 서로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아이들도 보면서 많이 웃고 기분도 좋아지시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가르침과 도움에 뜻 깊은 시간을 보낼수 있는시간들이었다. 하루 하루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 더욱 건강을 찾으시고 우리 아이들과 오래 오래 활동을 같이 하시기를 소원해본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 [꿈.꾸.랑]- 7회차 ○ 부채 만들기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갖기> 지역사회에 관심가지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요소 탐색하기		
활 동 유 형	조형	대 상 연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10:40 ~ 11:40)	대상자	입소어르신 16명/ 관산어린이집 원아 39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대강당(B2층)		
업 무 분 담	• 총 진행 - 김영혜 교사 • 프로그램 보조 - 어린이집 교사 3명, 사회복지사 및 공익요원		
준비물	• 한지, 밀가루풀, 붓, 일회용접시, 카메라		
진 행 사 항	① 10:40 - 어르신 및 어린이 집결 어르신 앞에서 어린이들 인사하기 ② 10:45 - 어르신과 아이들 함께 노래 부르기 - 시원한 여름 노래 부르며 율동하기 ③ 10:55 - 프로그램(부채 만들기) 소개 및 재료배분 ④ 11:00 - 한지를 뜯고 접시에 놓기 ⑤ 11:10 - 준비된 부채에 밀가루 풀을 발라 한지 붙이기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 보조진행자) ⑥ 11:25 - 풀이 마르도록 부채를 잠시 두고 마무리로 노래 부르도록 진행자 유도 ⑦ 11:30 - 전체 사진촬영(공단직원, 센터 어르신 및 관산어린이집 아이들) - 어린이들이 부채를 어르신께 전달한 후 인사하며 마무리		



2) 부채를 만들기 전 어린이집 선생님
께서 부채 샘플을 보여주시며 어린
이가 어르신께 부채를 부쳐 드리도
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어르신이 어
린이에게 보답으로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1) 어르신과 아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어린이집 친구들과 어르신들의 흥
을 돋우고자 노래시간을 간단하게 가
졌습니다. 어르신은 아이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동요를 부르시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3) 어린이집 선생님 설명에 맞춰 열심
히 한지를 뜯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뜯으면 되죠?” 라
고 아이가 묻자, 어르신이 “그럼 잘
했구나~ 다른 색깔 한지도 뜯어봐”
라고 하시며 옹기종기 한지를 뜯어
가지런히 놓고 있어요.

4) 국민건강공단 센터장님께서 직접 방
문하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
셨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 옆에
서 시범을 보이면서 열심히 같이 해
주시고 있으시네요.



	5) 입소하신지 얼마 안되신 어르신께서 꿈꾸랑을 참여하시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답니다. 오랜만에 손자를 보는 것 같아 기쁘시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아이와 함께 부채 만드시는 데 열심이시네요~ “할아버지! 제가 풀칠할데니까 한지 붙이시면 되요” “오냐~ 골고루 풀칠 해~ 알록달록 하게 한지를 붙여보자!” 대화를 주고 받으며 열심히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6) 한 쪽 손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와가며 부채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이에 어르신은 뿌듯함을 느끼고 열심히 서로 도와가며 부채를 만들고 계십니다.   완성된 부채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 가	아이들과 어르신들 모두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함께 부채를 만들어보고 여름 내내 이 부채를 쓰시면서 뿌듯함을 느끼시길 기대해 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 모두 프로그램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손자 손녀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은 부채를 만들고 어르신들께 선물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끼고 어르신은 부채를 받고 아이들을 보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 [꿈.꾸.랑]-8회차 ○ 추석 - 송편빚기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다른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탐구과정즐기기		
활 동 유 형	요리	대 상 연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10:40 ~ 11:35)	대상자	입소어르신 15명/ 관산어린이집 원아 30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옥상(7층)		
업 무 분 담	• 총 진행 - 주진이 원장 • 프로그램 보조 - 어린이집 교사 3명, 영양사, 요양보호사 5명, 공익요원 2명		
준비물	• 반죽, 콩가루, 비닐장갑, 수저, 쟁반, 오디오, 노래CD		
진 행 사 항	※ 집결 전 손 씻고 오도록 공지 ① 10:40 - 어르신 및 어린이 옥상으로 집결 어르신과 어린이들 인사하기 ② 10:45 - 추석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② 10:50 - 프로그램 소개(송편만들기)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 ③ 11:00 - 재료 배분 ④ 11:05 - 쌀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떼어 송편을 만들 수 있도록 설명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 보조진행자 돕기) ※ 동요노래 CD를 재생 시킨다 - 요양센터 공익 요원 ⑤ 11:30 - 전체 사진촬영 (공단직원, 센터 어르신 및 관산어린이집 아이들) ⑥ 11:35 - 간식 나눠주기 및 뒷정리 마무리 ※ 송편은 찌서 어르신들 간식 및 어린이집 어린이들 간식으로 제공		



- 1)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과 관산 어린이집 친구들이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예의도 바르구나, 반갑다. 애야”
추석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친구들이 예쁘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 2) 참사랑 영양사님이 송편 빚기 전 송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네요. 어르신들과 아이들 모두 경청하는 자세로 설명 듣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3) 어린이가 어르신이 함박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는 자꾸 송편 옆구리가 터져요. 자꾸 콩가루가 나와요.”
라고 아이가 말하자, 어르신이 웃으며 “콩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지~ 조금만 덜 넣어봐” 라고 말씀하시네요.



- 4) 공단 센터장님과 담당자께서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 5) 어르신과 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앉아 열심히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며 어르신이 뿌듯해 하고 있어요~
“작은 손으로 잘도 만드는 구나”라고 어르신이 칭찬을 해줍니다.
어린이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 더욱 열심히 빚었습니다.
- 6) 어린이들이 만든 송편을 선생님께 주느라 바빠 보이네요~
한 쪽에서는 공단 센터장님이 흐뭇한 모습으로 프로그램 진행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평 가

추석을 맞이하여 유아들과 어르신들이 송편 빚기 프로그램을 하며 추석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며 풍요로운 명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의 재잘거림으로 어르신들의 무료한 생활에 활력을 넣어 드린 것 같았고 명절의 풍속을 함께 경험해보는 것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유아들은 자기가 만든 송편을 찌 먹어봄으로써 성취감도 느꼈을 것이고 어르신들은 송편을 만들면서 가족과 함께 한 명절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행사명	-관산 시립 어린이집 자매결연 프로그램-9회차 ○ 할아버님 할머니를 위한 재롱잔치		
행 사 목 적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활 동 영 역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갖기> 지역사회에 관심가지고 이해하기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활 동 유 형	신체표현	대 상 연 령	만3세 ~ 만4세
일 시	2012년 12월 5일(수) (10:30 ~ 11:30)	대상자	입소 어르신 20명/ 관산 어린이집 원아 28명
장 소	참사랑노인요양센터 지하2층 대강당		
업 무 담	- 차효정선생님- 카메라, 전날 문앞 공지, 유아관리 및 율동, 총진행 - 김주현선생님- 사진촬영, 유아관리 및 율동 - 유서정선생님- 사진촬영, 유아관리 및 율동, 음악CD		
준비물	• 체육복, 율동CD, 카메라		
진 행 사 항	① 10:30 - 해솔반>빛솔반 순으로 참사랑 요양센터로 이동 (지하 2층 강당으로 이동) ② 10:40 - 해솔반 빛솔반 유아 모두 나와 할머니 할아버님과 인사나누기 ③ 10:45 - 순서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님께 율동선 보이기 1. 캔디 - 빛솔반 2.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 해솔반 3. 강원도 아리랑(태권무) - 빛솔반 4. 마이클잭슨 - 해솔반 5. 락스타 - 빛솔반 6. 두근두근 예예 7. 트윅클 - 빛솔반 8. 판매왕 - 해솔반 ④ 11:20 - 다함께 '햇님 사랑' 합창하며 마무리하기 - 할머니 할아버님께 인사드리기 - 기념사진 촬영 ⑤ 11:30 - 해솔반 먼저 이동하여 엘리베이터 탑승 후 빛솔반 탑승 -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인원점검 - 해솔반>빛솔반 순으로 어린이집으로 이동		



5) 순서에 따라 율동을 마친 후 어린이들이 합창곡을 율동과 함께 선보입니다. 유아들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교사와 우리 아이들도 즐거움이 함께 느껴 집니다.



6) 합창곡이 끝난 후 건강보험공단분과 요양센터 직원분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안아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 답니다.



5) 어르신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지며 추운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 시기를 바라보며 할머니 할아버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 하고 포옹하며 인사를 나눕 니다.행사가 끝난 유아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린이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평 가

유아들이 처음 참사랑요양병원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보며 조금은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먼저다가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안아드리며 친밀감을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추운 겨울 유아들도 어르신들께 뜻 깊은 선물을 전해드 린 것이 기뻐는지 어린이집으로 오는시간 내내 모두가 흥얼거리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행사가 3개월 간격으로 이루어 지니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에는 만남의 간격을 단축 했으면 한다.

Ⅲ. 결론

1 교사의 프로그램 실행평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인생의 절망기에 있는 어르신들께 우리의 아이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고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음이 다행스럽고 아이들에게는 세대를 넘어서는 만남을 제공할 수 있어 내가 있기 까지 앞서 계신 어른들이 있음을 인식해 갈수 있었다.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공경심을 키울 수 있으며 나의 존재로 기쁨을 드릴 수 있음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일련의 활동으로 어르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은 시간 같은 생각을 도모 할수 있다는 것이 흐뭇하며 어르신과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핵가족화 사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험이었다고 사라져가는 경로사상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 없이 뜻 깊은 일이었던 것 같다.

2 향후 타 어린이집에 참고가 되는 제언

영유아가 자신의 주변세계를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비교적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지역사회연계활동이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주변환경과 주변인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일어 날수 있겠다.

본 원에서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만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면서 그 접근부터 색다르고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만남을 가진다는 것에만 급급해 정작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했던 어르신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기본 예절교육에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 핵가족화로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자주 이뤄지지 못했던 유아에게 어르신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예절과 경로사상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만나기 위한 기본 소양과 예의를 알려준 후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핵가족화로 다소 버릇없고 예의 바르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지도가 필요하였다. 또한 어르신을 대하는 교사의 모습 또한 유아들이 배울 수 있는 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지역사회활동이라는 범주에 머물러 국한된 시선을 주기보다는 어르신들에 대한 친근감과 좀 더 확장시키고, 사랑 실천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동참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기대효과 및 제언

1) 기대효과

노인에게는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유대감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인식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적인 활동이 효과적으로 지속된다면 노인과 유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긍정적인 유대감과 사회적 정서적 자신감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는 또한 그 지역의 노인과 유아 또는 교사들 간의 서로 돕고 보살피는 인식이 형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2) 제언

노인시설과 유아기관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시설의 담당자와 유아 교사에 대한 사전교육이 절실하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의 경우 노인시설의 담당자들보다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노인을 이해하는 보다 실제적인 사전 교육과 함께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유아들이 갖기 쉬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세대 간의 단절감이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고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인시설의 어르신과 유아기 관의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과 적절한 보상,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기대해본다.

IV.참고문헌

- 1.유안진(1984).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정민사.
- 2.곽경란(2007).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연계 활동이 유아와 노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유안진(1984).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 4.임재택(2001). 「유아교육기관의 노인, 아동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제5권 제3호, pp67~101.
- 5.신혜원(2008). 「노인놀이치료」 경기:공동체.
- 6.김남경(2009). 「노인-아동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